



2016 Equity Strategy

2016년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주식이 주도

2016년 연간 주식시장 전략을 통해 언급한 것처럼 2016년은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경제도 저성장과 저금리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시 역시 박스권 장세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주도주)에 집중될 것이며, 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되고 증시에 주도주가 될 업종은 결국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이 업종들을 “홍익인간 주식”으로 칭한다.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며, 인간의 생명을 더욱 연장하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업종들이 2016년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업종들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주도주일뿐만 아니라 중국이 2020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샤오강(小康) 사회와도 일맥상통하는 업종들로 중국 수혜주로도 시장의 관심을 이끌며 주도주로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Strategist

김 정 현

02) 6915-5792

john@ibks.com

CONTENTS

Intro.....	3
글로벌 저성장 국면 지속, 결국 관심은 사람에게.....	4
2016년 국내증시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업종이 주도.....	7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할 사물인터넷(IoT) 업종.....	8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도래.....	8
사물인터넷(IoT)의 적용 분야는 세상 모든 영역.....	9
사물인터넷(IoT)의 성장은 ‘스마트홈’으로부터.....	11
사물인터넷은 중소형주에 더 기회가 될 전망.....	14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할 2차전지 업종.....	17
환경에 대한 관심 전세계로 확산.....	17
친환경 산업의 근간은 2차전지.....	19
친환경 산업의 근간이 되는 2차전지 산업에 주목.....	22
인간의 생명을 더욱 연장하게 할 제약바이오 업종.....	24
생명 연장의 꿈은 이미 진행 중.....	24
고령화는 산업의 구조도 바꾸고 있다.....	25
제약 업종의 상승세는 이미 시작.....	29
2016년 이후 판은 더 커진다.....	31
"홍익인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33

Intro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2016년 글로벌 경제는 저금리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6%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역시 정체를 지속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저금리·저성장 국면에서 인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과거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 중국에서도 볼 수 있듯 한 나라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지속한 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관심은 삶의 질, 즉 인간 자체로 집중되게 된다.

특히 글로벌 저성장 국면의 발단이 그 동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인류 및 증시에서의 관심사도 중국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의미하는 ‘샤오캉(小康) 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더 이상 성장이 아닌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이념이 사회와 경제, 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에 실린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이다.

2016년 국내증시는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 업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며, 인간의 생명을 더욱 연장하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사물인터넷과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이 2016년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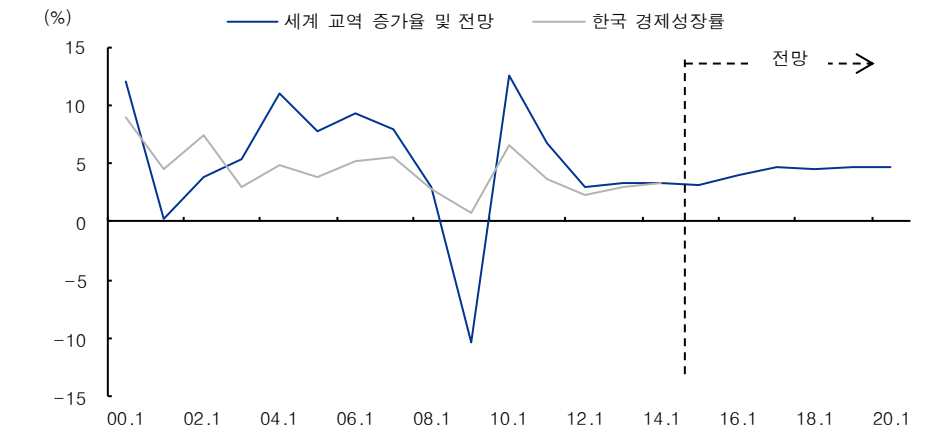
특히 이 업종들은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샤오캉(小康) 사회’로의 진입을 향한 13차 5개년 계획과도 맞물리며 중국 수혜주로서의 영향력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 지속, 결국 관심은 사람에게

글로벌 경제 정체 국면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활력은 정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었던 중국 경제가 감속 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기술 혁신 등 새로운 돌파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글로벌 교역 증가율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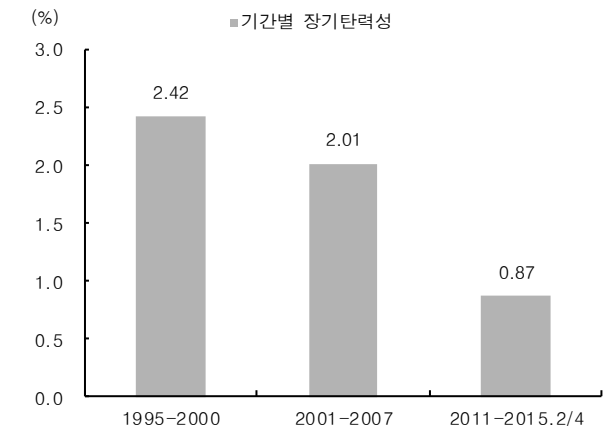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교역 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률 향후 전망



자료: IMF,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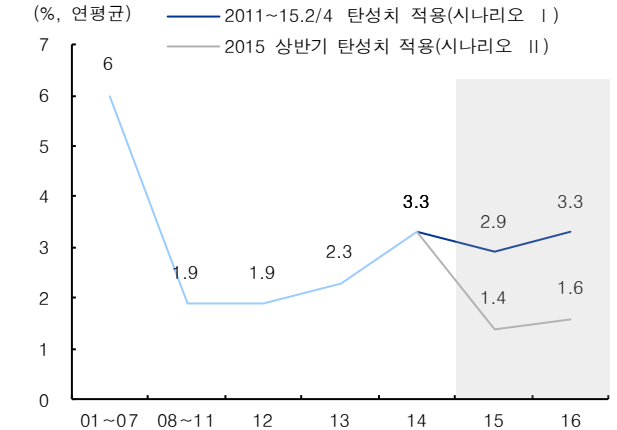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전의 높은 교역 신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한 자원 수출국의 수입 여력 둔화와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비동조화 및 불확실성, 교역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및 소비 중심으로 중국 정책 전환 및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GDP 성장률에 대한 교역의 장기 탄성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교역탄성치를 이용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면 1%대의 교역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 GDP 성장률에 대한 교역의 장기탄력성 (기간별)



자료: IMF, CPB, 한국은행 추정
(교역 탄성치는 GDP 성장률에 대한 수입물량의 탄성치)

그림 3. 한국은행 장기탄성치를 이용한 글로벌 교역신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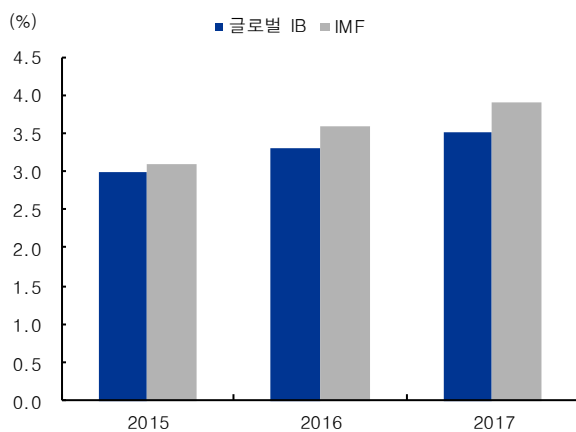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2016년 글로벌 경제 3%대
초·중반 기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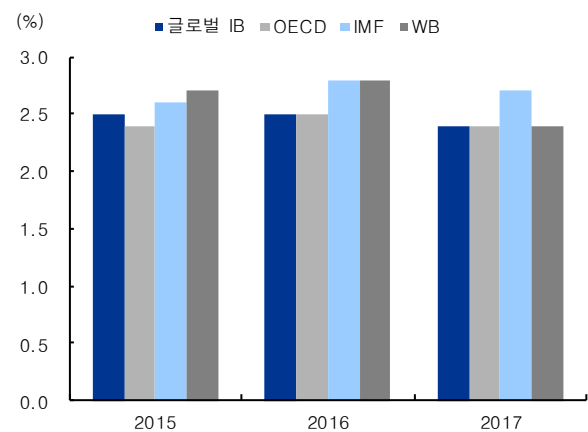
이렇게 부진한 교역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로 그대로 이어진다. 글로벌 주요IB와 주요 공식 기관 등이 예상하는 2016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6%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역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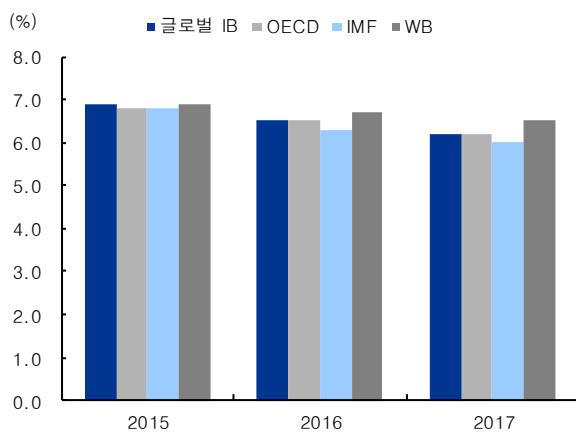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5.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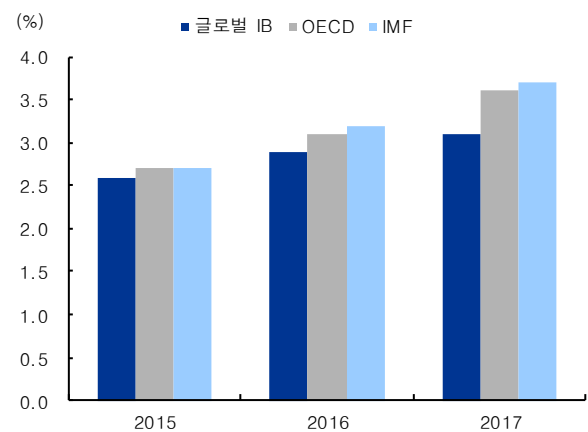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6.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7.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저성장 국면,
관심은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관심은 다시 사람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도 그랬지만 최근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도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의지 표명

매년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던 중국 경제는 점차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기 5중전회에서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중심의 노동 집약적 생산 국가에서 소비 국가로의 질적 성장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13.5개년 계획에서는 주요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샤오강 사회 건설, 중고속 성장, 농업현대화, 창조발전, 시장자유화,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전면적 2자녀 정책, 3대 국가전략 본격화 등이다.

또한 2020년까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의미하는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 실현해 나가야 할 5대 목표로 중고속 성장 유지, 민생 수준 제고, 국민소양과 사회문명 제고, 생태환경 총체적 개선, 제도 성숙·정형화 등을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지난 2015년 3분기 GDP가 7%를 하회한 것에 대해 “중국은 7%의 성장률을 고수할 것이라고 한 적 없다. 경기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측면에서 7%는 미달이 아니라 어렵게 얻은 성과이다” 라고 언급하며 향후 중국 정부가 고속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했다.

표 1. 중국 18차 5중전회 주요 결정 내용

구분	내용
샤오강 사회 건설	2020년 인당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대, 중산층 사회 건설 5년간 7,000만명의 극빈자 빈곤 탈출
중고속 성장	- 신창타이 진입, 중고속 성장세 유지 - 소비의 성장 기여도 확대, 도시화 더욱 가속
농업현대화	식량확보 전제하에 토지 산출량, 자원활용도, 노동생산량 제고
창조발전	- 과학기술, 산업, 기업, 시장, 상품, 업종, 관리 등의 전면적 혁신 추진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시장자유화	시장가격 결정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함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 환경보호, 에너지절감을 기본국책으로 제정 - 주민의 질적 생활위해 생태문명 건설
전면적 2자녀 정책	35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 폐기(모든 부부에게 2자녀 허용)
3대 국가전략 본격화	- 일대일로, 장진지, 창장 경제벨트 - 경제지대 건설, 지역간 협력 발전

자료: 언론, IBK투자증권

이렇게 그 동안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왔던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방향 변경은 한 국가가 고도의 성장기를 마치고 성숙기로 들어서면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질로 목표가 전환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결국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짐을 잘 보여준다.

2016년 국내증시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업종이 주도

2016년 국내증시
“홍익인간” 업종이 주도

글로벌 저성장 국면의 발단이 그 동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중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인류 및 증시에서의 관심사도 중국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2020년까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의미하는 ‘샤오캉(小康) 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더 이상 성장만이 목표가 아닌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이념이 사회와 경제, 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바로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에 실린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이다.

2016년 국내증시는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 업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며, 인간의 생명을 더욱 연장하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사물인터넷과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이 2016년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업종들은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샤오캉(小康) 사회’로의 진입을 향한 13차 5개년 계획과도 맞물리며 중국 수혜주로서의 영향력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할 사물인터넷(IoT) 업종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도래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할
사물인터넷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편함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할 기술 중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사물인터넷(IoT)이다.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는 1999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Auto-ID Center 소장 Kevin Ashton이 향후 RFID(전자태그)와 기타 센서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물에 탑재한 사물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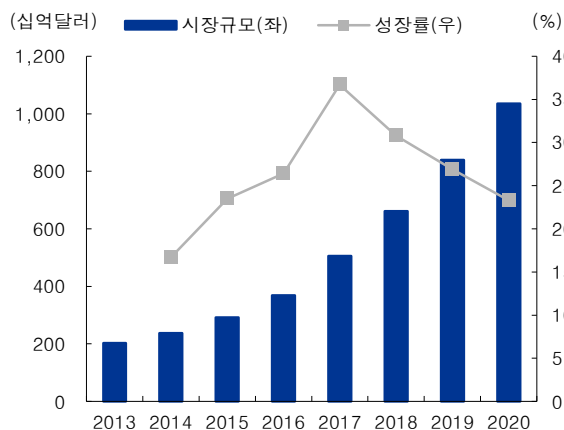
사물인터넷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는 것

사물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연결할 것인가?’ 보다는 ‘왜 인터넷으로 사물들을 연결하는가?’에 있다. 사물인터넷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사물이 가진 특성을 더욱 지능화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자동화하며, 다양한 연결을 통한 정보 융합으로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즉 사물인터넷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2020년 1조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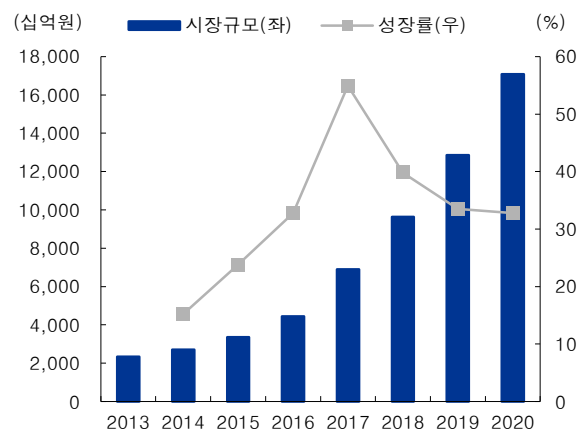
향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천억 달러에서 2020년 1조달러에 이르며, 국내 시장의 경우 2013년 2.3조원에서 2020년 17.1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8.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자료: Machina Research, STRACORP(2013), IBK투자증권

그림 9.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자료: STRACORP(2014), IBK투자증권

사물인터넷(IoT)의 적용 분야는 세상 모든 영역

사물인터넷의 적용범위는
매우 다양, 따라서 성장
잠재력도 매우 커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대기업들과 스타트업 회사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사물인터넷의 적용범위는 가전, 헬스케어, 홈케어, 자동차, 교통, 건설, 농업, 환경,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식품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해당된다.

사물인터넷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가전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와 세탁기를 스마트폰과 연결시키면서 스마트홈 네트워크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

헬스케어는 ‘사물인터넷’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나아가 홈케어 영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블루투스(Bluetooth), 와이파이(WiFi), NFC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환자의 생체정보를 획득하는 센서, 개인의 운동량이나 신체 특징을 측정하는 센서 등의 개발이 중요하다.

홈케어 분야는 문/조명등 제어, 지능주택관리, LBS 방법 외출 보안시스템, 냉난방 환기 자동조절, 스마트홈서비스, 취약계층 원격 케어서비스 등이다. 스마트홈은 외출시 보안시스템이 작동되어 외부에서 화재나 범죄 여부에 대한 체크가 실시간 가능하고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하는 텔레매틱스가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서비스이며, 스마트카 역시 ‘사물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차량 내 장착된 심카드를 통해 차량의 운전 상태는 물론 사고의 발생 시점 및 위치를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차내 기술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고, 택시 무선결제와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에 이미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물인터넷의 적용분야는 사실상 세상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표 2. 사물인터넷(IoT) 주요 적용 분야

분야	내용	주요제품
헬스케어	건강보조도구, 혈당량 측정, 건강정보송신, 원격진료, 스마트폰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핏빗플렉스(핏빗), 픽스(코벤티스), S헬스 서비스(삼성전자), 2net(퀄컴), 헬리어스(프로테우스바이오메디칼), 트윗피(하기스)
홈케어	문/조명등 제어, 지능 주택 관리, LBS 방범, 외출 보안시스템, 냉난방 환기 자동조절, 스마트홈서비스, 취약계층 원격케어 서비스	스마트싱즈(Smartthings), 스마트홈, 스마트라이트(SKT)
자동차	텔레매틱스, 무인자동차,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차량원격관리	OnStar(GM), Sync(포드), 블루링크(현대차), 무인자동차(구글), 스마트 오토모티브(SKT), 실시간 차량관제 서비스(LG유플러스)
산업	시설물 관리, 공장 자동화, 유통망 검색, 오·폐수 자동관리, 결제/과금 서비스, 스마트융합가전, 물류시설관리	NFC 결제단말, 공장 자동화 센서, POS 모바일 소액결제
교통	교통안전, 국도 모니터링, 배기가스 실시간 감지, 택시 무선결제, 디지털 운행 기록관리	지능형 교통 서비스, 지능형 주차 서비스 SF Park(샌프란시스코시)
건설	건물/교량 원격관리 서비스, 시설물 관리, 스마트시티	가로등 밝기 자동조절,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미 Valarm 사), 송도 스마트시티(시스코), 원격 조명관리시스템(ARM)
농업	실시간 작물상태 모니터링, 온도/습도 감지 및 조정, 농작물 수확량 재고 관리	스마트팜(SKT), 지능형 파종 서비스(일본 신푸쿠청과), 지능형 젖소관리 서비스(네덜란드 사프크드사)
환경	날씨나 온도 측정 센서, 야생동물 위치 확인, 서식지 보존, 방사능 등 위험물질 위치파악, 지능형 쓰레기 수거시스템	네타모(Netatmo), 쓰레기통 최적 수검경로 안내, 불법 벌목 방지, 온도·물 관리 시스템(ARM), 스마트 에셋트래킹(SKT), 스마트클린 시스템(LG유플러스)
엔터테인먼트/게임	재미, 오락	버블리노(Bubblino), 스마트워치(소니), 구글글라스, 스마트기어(삼성전자), 퓨얼밴드(나이키), 조본업(조본)
에너지	중앙 전원 통제, 고압 전력 원격검침, 전력 신청 및 공급, 에너지 하베스팅, 분산 전원	위모(WeMo), 스마트미터, 스마트그리드(누리텔레콤)
안전	재난 예측, 재해 조기감지, 실시간 화재 및 침입정보 서비스	스마트 원격관제 서비스(KT), 안심마을 zone 서비스(LG유플러스)
경로추적	애완동물이나 자동차 추적	트랙티브펫트래커(Tractive pet tracker)
식품/급식	초밥감지 서비스, 지능형 식기도구, 단체급식 위생관리 솔루션	회전초밥감지(스시로), 하피포크(하피랩스), 스마트 프레시(LG유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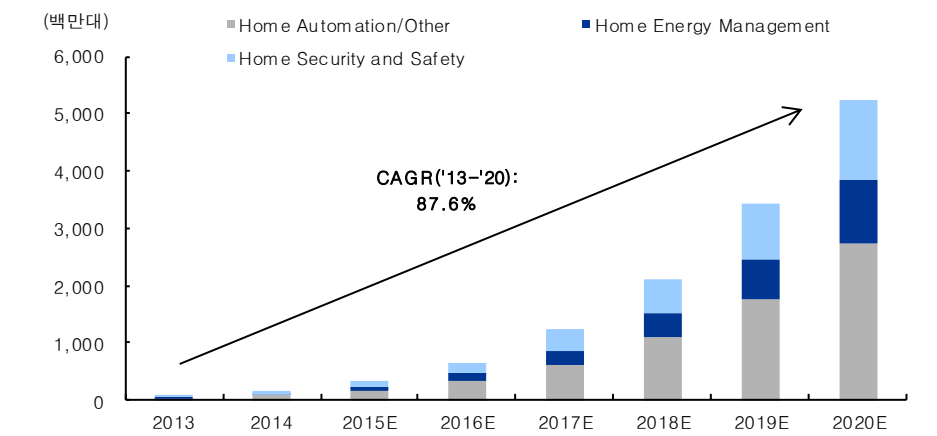
자료: ETRI, IBK투자증권

사물인터넷(IoT)의 성장은 ‘스마트홈’으로부터

소비자들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스마트홈)에
관심

사물인터넷의 성장성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생소한 제품보다는 홈서비스와 같이 실질적으로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iels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기술력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쉽게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영하듯 가트너는 글로벌 스마트홈 기기 수요가 2020년까지 연평균 87.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림 10. 스마트홈 기기 수요 전망



자료: Gartner, IBK투자증권

스마트홈 중심의
사물인터넷, CES 2016을
통해 관심 커질 전망

특히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한 사물인터넷은 2016년 1월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통해 그 관심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가전협회(CEA)가 주관하는 CES는 매년 초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미래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ICT(정보통신기술) 각축장이다. 또 ICT와 결합한 스마트카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전시회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CES는 미래를 바꿔놓을 최첨단 기술의 방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지난 2015년 ‘CES 2015’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윤부근 삼성전자 CE 부문 사장은 "2017년엔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의 90%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들어갑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올라갑니다."라고 언급하며 삼성전자, 나아가 인류의 미래가 사물인터넷에 있다고 말했다.

2016년 CES도 사물인터넷은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ES 2016,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기업
사물인터넷 전략 발표

최근 삼성전자에서 삼성SDS 솔루션사업부문으로 옮긴 홍원표 사장은 CES 2016의 기조연설자로 등장한다. 홍 사장은 삼성전자의 IoT 기기들, 헬스케어 등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한 IoT 등 삼성의 IoT 전략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공개될 제품으로는 '슬립센스(SLEEPsense)'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2015년 9월 열렸던 IFA 2015에서 시제품 형태로 공개했던 제품으로 이 제품의 상품화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아두기만 하면 얼마나 잠을 깊이 자는지, 잠자는 사이에 몸 상태는 어떤지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는 IoT 기기다. 특히 수면 상태에 따라 에어컨·TV·전등 등 다른 기기의 작동을 조절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시장에 슬립센스를 출시한다.

LG전자는 IFA 2015에서 일반 가전제품을 스마트 가전으로 바꿔주는 신기술을 선보였다. 지름 약 4cm인 원형 모양의 탈부착형 장치인 스마트씽큐 센서(SmartThinQ™ Sensor)를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반 가전 제품에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CES 2016에서 모바일 메시저로 가전을 제어하는 '홈챗' 서비스와 스마트씽큐 센서를 통한 유기적인 스마트홈 환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은 "제품과 제품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지, 부엌이나 세탁기 등의 공간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지에 대한 게이트웨이와 솔루션을 내년 3월 내놓을 것"이라며 "LG전자는 향후 자신의 휴대폰과 연결만 되면 인터넷을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스마트홈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이동통신 3사도 스마트홈
사업에 주력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3사 역시 스마트홈 사업에 각기 다른 사업 모델을 통해 진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플랫폼 사업자를 지향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사업모델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홈 사업 연평균
19%의 성장 전망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규모는 2015년 49조원에서 2019년 114조로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역시 스마트홈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스마트 가전은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이용에는 제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CES 2016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의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보스 포럼도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키울 전망

또한 1월 20일~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선정되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디지털기기와 산업의 융화로 사물인터넷이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돼 CES 2016과 더불어 사물인터넷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또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도 스마트홈
중심의 사물인터넷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한 사물인터넷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구글의 M&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구글은 34건의 M&A를 진행했다.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다.

표 3. 구글 M&A 연대별 분류

일자	기업명	비즈니스 구분	국가	인수액	M&A 목적
2014-01-13	Nest Labs, Inc	Home automation	USA	\$ 3,200,000,000	Google
2014-01-15	Impermium	Internet security	USA	-	Google
2014-01-26	DeepMind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UK	£ 242,000,000	Google X
2014-02-16	SlickLogin	Internet security	ISR	-	Google
2014-02-21	spider.io	Anti ad-fraud	UK	-	DoubleClick, AdSense
2014-03-12	GreenThrottle	Gadgets	USA	-	Android
2014-04-14	Titan Aerospace	High-altitude UAVs	USA	-	Project Loon
2014-05-02	Rangespan	E-commerce	UK	-	Google Shopping
2014-05-06	Adometry	Online advertising attribution	USA	-	Google
2014-05-07	Appetas	Restaunt website creation	USA	-	Google
2014-05-07	Stackdriver	Cloud computing	USA	-	Google Cloud
2014-05-07	MyEnergy	Online Utility Usage Monitor	USA	-	Nest Labs
2014-05-16	Quest Visual	Augmented Reality	USA	-	Code Project, Google Translate
2014-05-19	Divide	Device Manager	USA	-	Android
2014-06-10	Skybox Imaging	Satellite	USA	\$ 500,000,000	Google Maps, Project Loon
2014-06-19	mDialog	Online advertising	CAN	-	DoubleClick
2014-06-19	Alpental Technologies	Wireless Technology	USA	-	Google
2014-06-20	Dropcam	Home Monitoring	USA	\$ 555,000,000	Nest Labs
2014-06-25	Appurify	Mobile Device Cloud, Testing Services	USA	-	Google Cloud
2014-07-01	Songza	Music streaming	USA	-	Google Play
2014-07-23	drawElements	Graphics compatibility testing	FIN	-	Android
2014-08-06	Emu	IM client	-	-	Google Hangouts, Google Now
2014-08-06	Directr	Mobile video	USA	-	
2014-08-17	Jetpac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 recognition	USA	-	
2014-08-23	Gecko Design	Design	USA	-	Google X
2014-08-26	Zync Render	Visual Effects Rendering	USA	-	Google Cloud Platform
2014-09-10	Lift Labs	Liftware	USA	-	Life sciences division of Google X
2014-09-11	Polar	Social Polling	USA	-	Google+
2014-10-21	Firebase	Data Synchronization	USA	-	Google Cloud Platform
2014-10-23	Dark Blue Labs	Artificial intelligence	UK	£ tens of millions	Google DeepMind
2014-10-23	Vision Factory	Artificial intelligence	UK	£ tens of millions	Google DeepMind
2014-10-24	Revolv	Home automation	USA	-	Nest Labs
2014-11-19	RelativeWave	App Development	USA	-	Android
2014-12-17	Vidmaker	Video Editing	USA	-	You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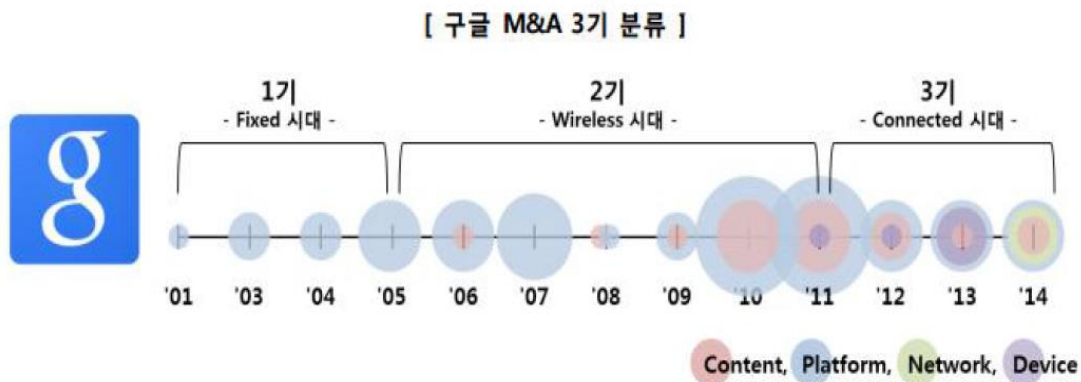
자료: IBK투자증권

그 동안 구글이 M&A를 진행한 사례를 구분하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Fixed(웹) 시대로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M&A에 집중했고 2단계는 Wireless(모바일)로 모바일 진출을 통한 온라인 광고 채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며 안드로이드 OS 생태계 구축에 집중했다. 현재 구글의 M&A는 3기로 구분되는데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구글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고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M&A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분야 사업 강화

우선 구글은 2013년 3월 DNN리서치를 인수하면서 사물인터넷에 좀 더 다가섰다. 이 코노믹리뷰는 구글의 DNN리서치 인수가 사물인터넷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구글은 SCHAFT와 Deep Mind Technologies 등을 인수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HW와 SW 기반을 마련했으며 Spider.io와 Sege TV 등을 인수해 보안과 자체망 구축 등을 이뤘다. 특히 지난해는 32억달러를 들여 스마트홈 전문기업인 Nest Labs를 인수하고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인 Revolve를 인수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1. 구글 M&A 연대별 분류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사물인터넷은 중소형주에 더 기회가 될 전망

사물인터넷의 적용 범위는
사실상 세상 모든 분야

2016년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의 적용 범위는 사실상 세상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따라서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련 업종 및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물인터넷은 중소형주에
더 기회가 될 것

특히 사물인터넷 분야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즉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사업이 카메라와 MP3 등을 몰아내고 시장을 재편한 킬러 앱(Killer Application)이었다면 사물인터넷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 적용되며 다른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자사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개방형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즉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로 사물인터넷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여러 중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은 관련 중소형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시장 선점에 나서

또한 사물인터넷 분야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7년까지 약 2,500억원을 투자하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 사물인터넷(IoT) 관련주

관련 기업	기업요약	시가총액 (억원)
삼성전기	사물인터넷 기반 ESL(전자가격표시기) 제품 생산	48,102.74
와이솔	무선통신 모듈 전문업체. 무선주파수 부품인 SAW Filter, Duplexer 등을 생산/판매. 퀄컴의 사물인터넷 사업 한국 협력사로 선정	2,983.55
유비쿼스	유선통신기기 제조업체로 스위치, FTTH장비를 생산	2,512.20
코콤	주택설비, CCTV시스템, 솔루션사업, LED조명사업 등을 영위. 주택설비 사업 부문에서 사물인터넷(IoT) 적용	2,007.24
바른전자	스마트TV 및 스마트 셋톱박스에 사물인터넷 핵심기술인 양방향 센서 공급	2,004.37
효성ITX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전송 서비스, 빅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	1,629.71
가온미디어	가정 내 모든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허브장치인 홈게이트웨이 및 AP라우터, 비디오브리지 등 와이파이 제품군을 제조/판매	1,441.38
유진로봇	사물인터넷 기반 식사 배달 로봇 '고 카트'를 제작해 상용화 추진 중.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권도 취득	1,333.39
다산네트웍스	네트워크 통신장비 개발업체로 FTTx솔루션, 이더넷 스위치 등 생산	1,189.75
에스넷	소프트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로 네트워크 보안 사업을 영위. FMC무선망 용도로 AP(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를 공급한바 있음	1,170.28
엔텔스	사물지능통신(M2M) 관련 플랫폼 사업을 진행. 전자부품연구원과 사물인터넷 사업 협력에 관한 MOU 체결	1,159.07
링네트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업체. 사물지능통신(M2M) 관련사업을 진행. 시스코의 제품 등을 이용한 자사 솔루션 사물지능통신 구축	778.94
아이엠	자회사 아이엠헬스케어가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를 공개하는 등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사업 진행	680.51
에이디테크놀로지	삼성전기의 사물인터넷 ESL에 부품 공급	527.45

자료: Infostock, Wisefn, IBK투자증권

그러나 실제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주의 향후 성장성 및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 이는 Amazon.com의 주가 및 밸류에이션을 보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밸류에이션 논란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석해야

아마존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매출은 높게 잡히지만 실제 이익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며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부터 AWS(Amazon Web Service)라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실적을 표기하면서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하며 2015년 한 해에만 1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1분기 이전 1년동안 AWS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고 한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현재 아마존의 PER은 900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PER 주라는 인식을 넘어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2. 아마존 주가 및 PER



자료: Datastream,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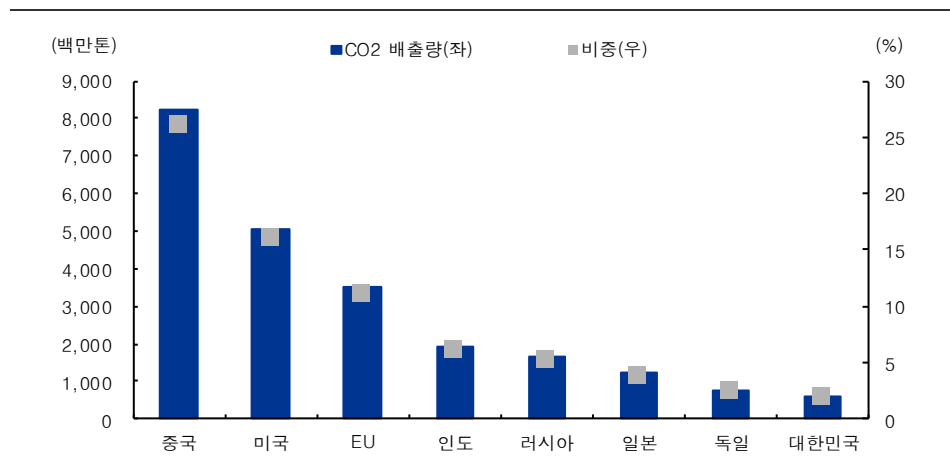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할 2차전지 업종

환경에 대한 관심 전세계로 확산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협정 최종 타결

현지시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기후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이번 파리 기후협정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정이 더 의미있는 이유는 전 세계 탄소배출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 때문이다.

그림 13.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IEA, 2014), IBK투자증권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부각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2013년 6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했으며, 중국 시진핑 정부는 자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녹색발전과 생태문명 구축 등을 표방하며 2013년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Cooperation)>을 발표한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대폭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의 2005~2020년 연평균 탄소배출량을 1.2% 저감하며 2020~2025년 기간중에는 2.3~2.8% 저감기로 약속했으며,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이은 파리 기후협정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파리기후협정은 195개국의 승인으로 합의되었는데 2100년까지 2도보다 작게 온도 상승과 매년 최소 1,000억달러의 재원 마련, 5년마다 이행 여부 점검 등이 핵심 사항이다.

개발도상국도 이번 기후 협정에 참여

물론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비판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데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점과 교토 의정서에서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도 이번 기후협정에서는 참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파리기후협정은 이전의 기후협정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기후에 대한 관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18차 5중전회를 통해 13.5규획을 발표하면서 5대 발전 이념을 제시했는데 이중 녹색(환경)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간의 조화를 실현할 것임을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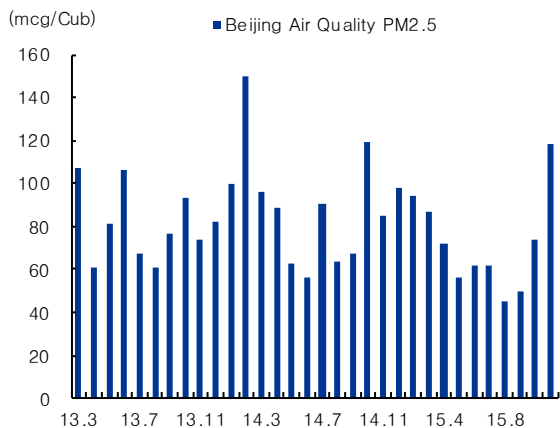
중국은 이미 환경 문제 심각한 수준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환경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은 중국의 환경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체 경작 가능 면적의 20%가 오염되어 있으며 수질과 관련해 주요 118개 도시 가운데 64%는 심각한 오염, 33%는 경미한 오염 상황이며 깨끗한 상태로 분류되는 지역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대기 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중국 대도시 인근의 스모그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베이징은 지난 11월 올해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UC Berkeley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38%가 유해 공기를 흡입하고 있고, 조기 사망 인구의 1/6은 대기 오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2월 중국 관영 방송인 CCTV의 전직 기자인 차이징이 사재 100만위안을 털어 1년 넘게 중국 전역과 영국 런던, 미국 LA를 오가면서 스모그 관련 다큐멘터리 'Under the dome'을 제작해 발표하면서 중국의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각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48시간 만에 시청자수가 2억명을 넘어섰고, 천지닝 환경부장관도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다면서 차이징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림 14. 베이징의 스모그 심각 수준



자료: CEIC, IBK투자증권

그림 15. 환경 다큐멘터리 'Under the d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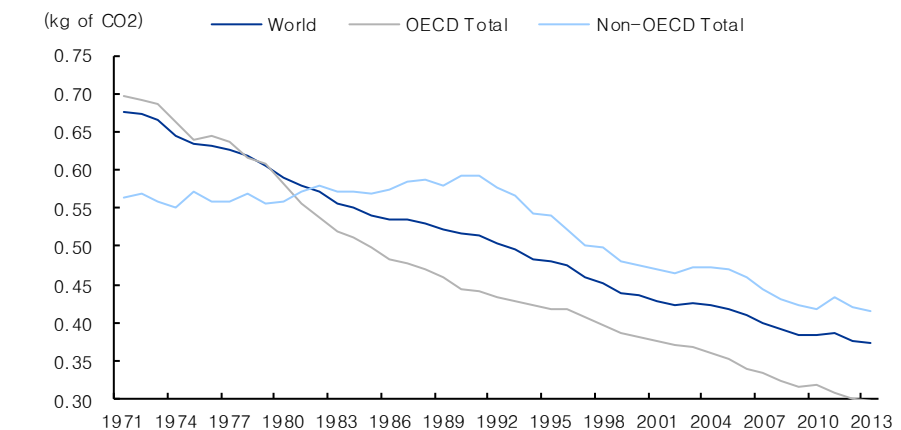
자료: 차이징의 'Under the dome', IBK투자증권

친환경 산업의 근간은 2차전지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산업구조도 바뀌

전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산업구조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형태로 바꾸고 있다. 과거 2000년 GDP가 1달러 증가하는데 OECD 국가들은 0.39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지만 현재는 0.31kg까지 낮아졌다. 신흥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0.49kg에서 0.42kg으로 낮아졌다.

그림 16.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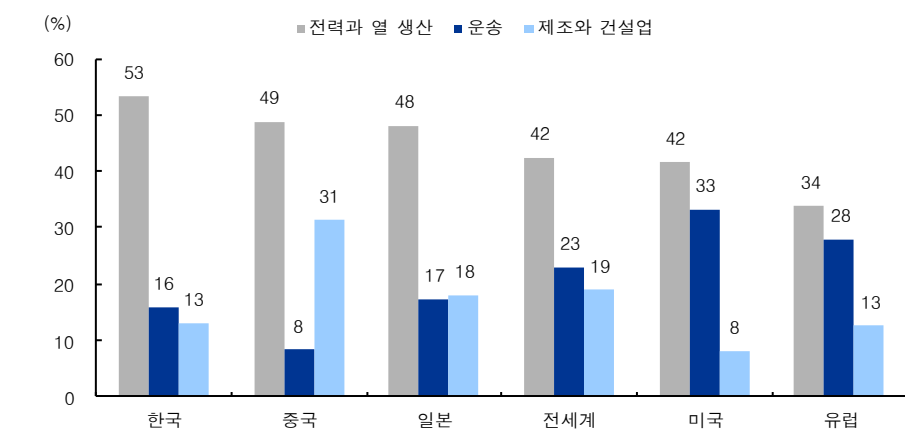


자료: IEA, IBK투자증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산업의 성장성 높아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력과 열 생산 분야로 이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미국과 유럽은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 한국과 중국, 일본은 제조와 건설업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태양력, 풍력 등)와 전기자동차(EV),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향후 성장성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17. 국가별 산업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자료: IEA, IBK투자증권

친환경 사업의 근간에는
배터리가 있어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가 기후 변화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급변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적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 원리이며,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 또한 배터리이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사업의 근간에는 배터리(2차전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전지 산업은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

특히 2차전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주도했던 클린 디젤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전기차의 중장기 성장성 부각, 중국 5중전회 이후 경기 부양 정책에서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안 기대감, UN기후협약총회에서 글로벌 탄소 저감 목표 설정하는 파리협약 채택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연평균 27.9%의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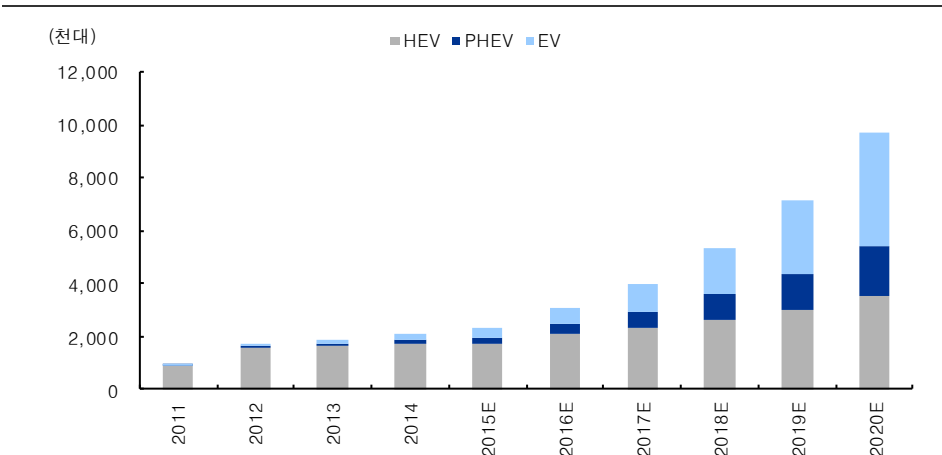
2차전지 관련 산업 중 특히 전기차의 성장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차(xEV)는 2015년 248만대에서 2020년 851만대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 27.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20년에는 전세계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에 이르게 된다.

특히 순수전기차인 EV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2015~2020년 사이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2015년 41.5만대에서 2020년 433만대로 연평균 59.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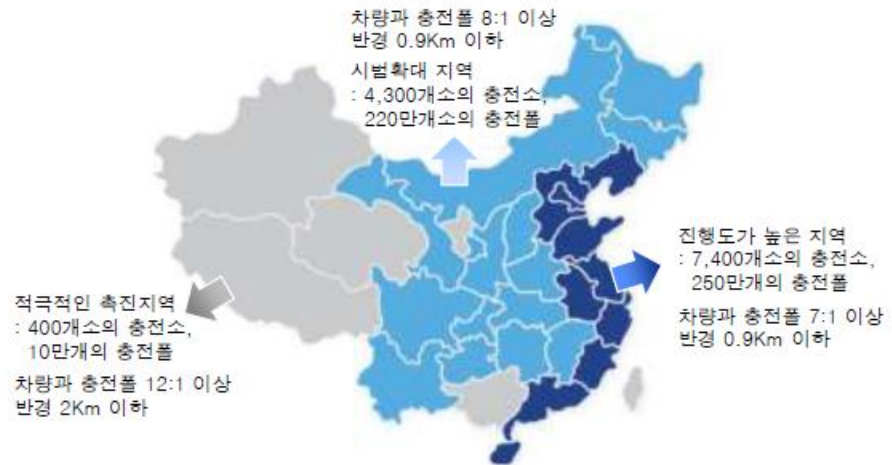
각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함해 약 10만위안의 보조금과 차량 가격의 약 10%의 차량구매세 면제, 번호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국 전체에 12,000개의 충전소와 480만개의 충전폴(Pole)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18.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 SNE리서치, IBK투자증권

그림 19. 중국 지역별 충전소 설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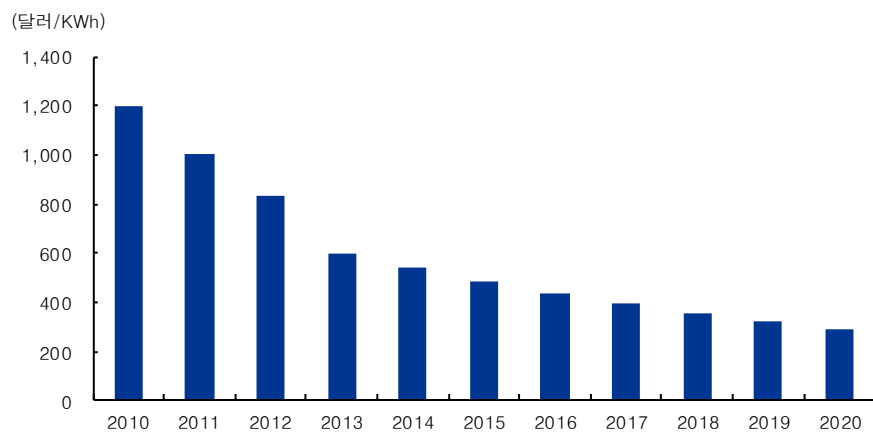


자료: SNE리서치, IBK투자증권

배터리 가격 하락도 전기차
수요 확대에 기여 전망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Citi 그룹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의 가격은 추세적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서 올해 1월에 486달러라고 추정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 조차 현재 일반적인 가격(약 300달러 초 중반 수준으로 추정)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 전 GM 때문에 알려진 LG화학의 배터리 납품 가격은 KWh 당 145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즉, 배터리 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가격 하락 및 수요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20. 리튬이온전지 가격 추이 및 전망



자료: Citi,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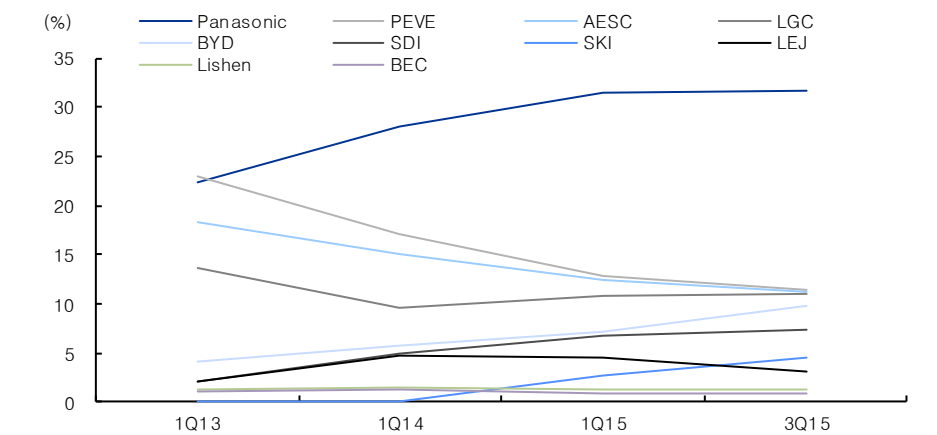
2차전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

친환경 산업의 근간이 되는 2차전지 산업에 주목

전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산업구조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형태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등 여러 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부문 중 하나가 2차전지 관련 부문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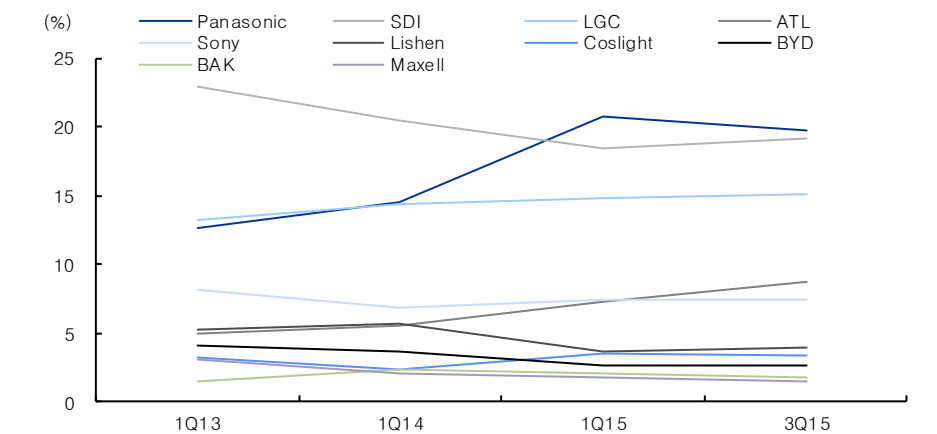
국내 2차전지 관련주 중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은 중대형전지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 GM, Ford와 유럽 Renault, VW와 함께 일본 Nissan, 한국 현대·기아차 등이 주요 고객이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소재의 중대형전지 5GW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증설로 인해 16년말에는 9GW의 생산능력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 소재의 증설도 고려하고 있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또한 중국 전기버스 화재 발생으로 안정성이 높은 동사 중대형전지의 중국 전기버스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중대형 전지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그림 22. 소형전지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삼성SDI의 자동차전지는 2018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별로 BEP를 갓 넘긴 시점이어서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매출액이 3조원에 근접할수록 고정비 비중 하락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적자규모가 감소한다는 점이 자동차 전지 사업부의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변수로 판단되며 중국향 물량 확대에 예상보다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이다.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에도 관심

LG화학과 삼성SDI와 같은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배터리(리튬이온)관련 소재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포스코켄텍(음극재), 솔브레인(전해액), 후성(전해질염), 일진머티리얼즈(음극재 기재) 등이 배터리 관련 소재 기업들이다.

표 5. 2차전지 관련주

관련 기업	기업요약	시가총액 (억원)
LG화학	전지사업의 경우 휴대폰,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소형 리튬이온 전지 및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를 생산 판매	223,996.32
삼성SDI	하이브리드카용 전지, 자동차전지 등 2차전지 사업부문을 영위. 2013년 자동차용 2차전지를 생산하는 자회사 SB리모티브를 흡수 합병	78,735.39
한화케미칼	리튬 2차전지 분야에서 전지용 양극재 소재인 LFP(리튬 인산 철)의 연간 600톤 규모 실증 공장을 2010년10월 완공	43,642.71
포스코켄텍	2차전지용 음극재 생산. LS엠트론의 2차전지 음극재사업부 인수, 2013년 8월 3,000톤 규모의 음극재 생산공장 보유하여 매출 시험 중	7,797.24
솔브레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2차전지 전해액 등 생산/판매 업체. 삼성SDI 등 국내 2차전지 제조회사에 관련 제품을 공급 중	6,674.95
후성	리튬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인 LiPF6를 제조. LG화학, 파나사이텍, 솔브레인, BASF 등에 납품 및 수출 중	4,980.35
일진머티리얼즈	리튬이온 2차전지용 음극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Elecfoil) 생산	4,488.40
서원인텍	2차전지용 SCM(스마트회로모듈), PCM(보호회로모듈) 등의 2차전지 사업을 영위. LG화학에 2차전지 보호회로 납품	2,269.20
에코프로	양극활물질 등 2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 주 원재료를 직접 양산하여 양극활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양산설비를 보유	2,032.00
애경유화	전기 제품 사업부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음극활물질사업 추진 중	1,819.87
상아프론테크	리튬 2차전지의 전해액 누수방지 및 절연기능 등을 담당하는 휴대폰 배터리 이상단부(CAP)의 조립부품을 생산	1,538.36
피앤이솔루션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 주요 매출처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1,392.30
파워로직스	2차전지 보호회로 및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	1,367.01
엘앤에프	2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판매업체	1,307.18

자료: Infostock, Wisefn, IBK투자증권

인간의 생명을 더욱 연장하게 할 제약·바이오 업종

생명 연장의 꿈은 이미 진행 중

소득 수준 상승은 생명 연장에 대한 관심을 키워

불사(不死)의 꿈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이다. 기원전 259~210년 중국 최초의 황제로 알려진 진시황을 생각하면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불로초 이듯 아주 오래 전부터 생명 연장의 꿈은 이어져 왔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며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재에서는 그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60년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6%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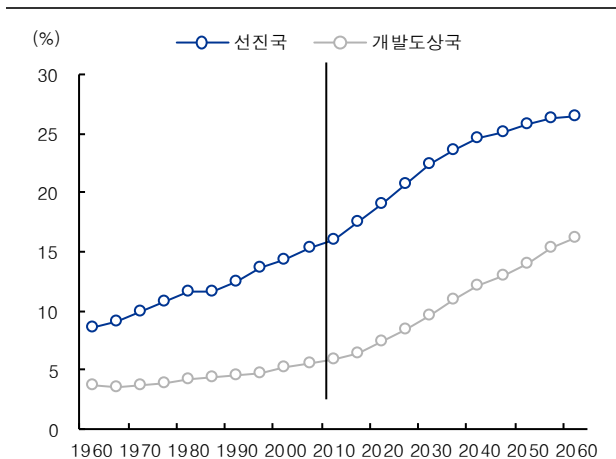
이런 관심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전세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60년 5.1%에서 2010년 7.7%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향후 증가세가 강화되며 2060년에는 17.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60년 이후 2010년까지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8.5%에서 16.1%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며 2060년에는 26.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흥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6%에서 5.8%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향후에는 고령화가 선진국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어 2060년에는 16.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2060년 37%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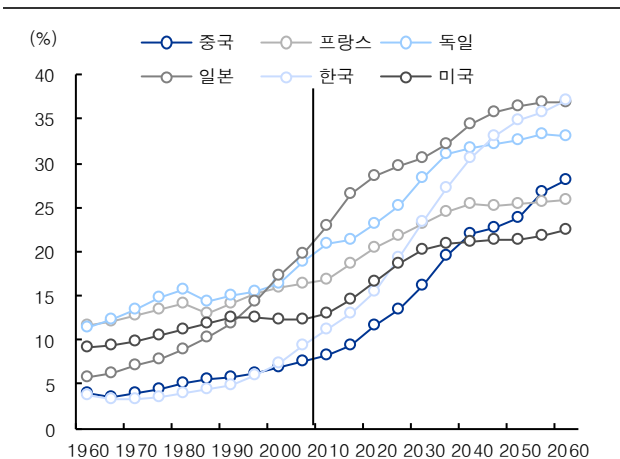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60년부터 2010년까지 4%에서 11%로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향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60년에는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에서도 향후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고령인구비율이 2010년 8%에서 2060년에는 2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카타르(41.6%), 오만(39.0%), 쿠바(37.3%), 한국(37.0%), 일본(36.9%)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전세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전망



자료: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IBK투자증권

그림 24.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망



자료: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IBK투자증권

표 6. 고령인구비율 및 고령화 속도 상위 국가(2010년~2060년)

2010년		2060년		2010년~2060년	
국가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국가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국가명	변화분(%p)
일본	23.0	카타르	41.6	카타르	40.5
독일	20.8	오만	39.0	오만	36.5
이탈리아	20.3	쿠바	37.3	UAE	31.2
그리스	19.0	한국	37.0	바레인	26.0
라트비아	18.4	일본	36.9	한국	26.0
불가리아	18.3	홍콩	36.8	쿠바	24.9
스웨덴	18.2	포르투갈	35.1	레바논	24.5
포르투갈	18.0	스페인	33.7	태국	24.0
오스트리아	17.8	독일	33.2	홍콩	23.9
크로아티아	17.5	레바논	32.9	싱가포르	23.4
에스토니아	17.5	태국	32.9	베트남	22.3
벨기에	17.2	세르비아	32.5	이란	22.0
핀란드	17.1	싱가포르	32.4	코스타리카	21.8
스페인	17.1	이탈리아	32.2	사우디아라비아	20.5
스위스	16.9	폴란드	31.8	튀니지	20.2
프랑스	16.8	UAE	31.5	중국	19.7

주: 2010년도 인구가 1백만명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함.

자료: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IBK투자증권

단위: %, %p

고령화는 산업의 구조도 바꾸고 있다

고령화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분야에 기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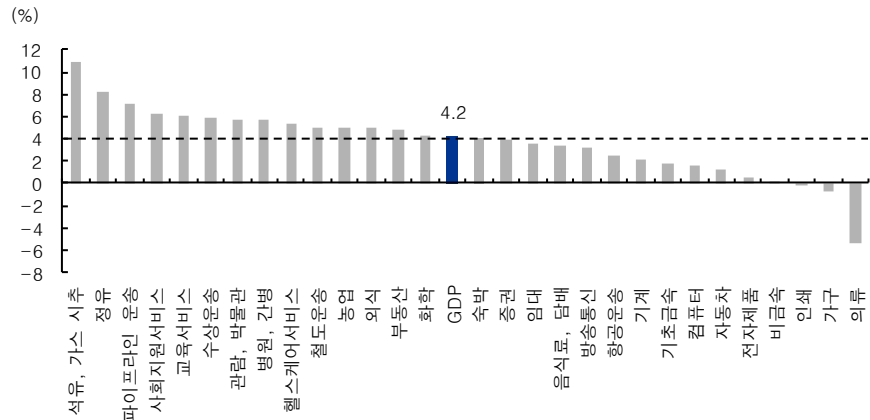
이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각 산업이 생산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가 결국은 소비를 전제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실 고령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분야이다.

과거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어 온 선진국들의 산업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조만간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독일, 그리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가 시작된 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 등의 산업변화는 향후 5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일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미국 2000년 이후 교육,
보건 등 업종의 성장을
GDP 앞서

먼저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의 산업별 성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단연 석유/가스 등의 시추, 정제, 운송에 이르는 석유관련 산업군이다. 셰일가스의 산업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되고 이전에 비해 석유의 생산량이 증가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성장이라기 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석유관련 산업군을 제외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병원·간병, 헬스케어 서비스 등 업종이 GDP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림 25. 미국의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2000~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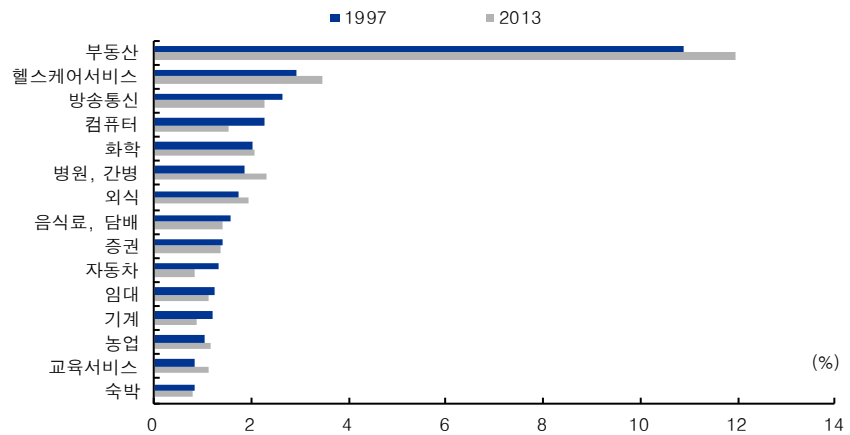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산업별 비중 변화도
헬스케어 및 의료 업종
두각

또한 2000년을 전후로 산업별 비중변화를 보면 헬스케어 및 의료 업종의 변화가 눈에 띈다. 헬스케어서비스는 1997년 2.9%였던 산업 내 비중이 2013년에는 3.5%까지 성장하였고, 병원 및 간병 업종은 25%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26. 미국의 산업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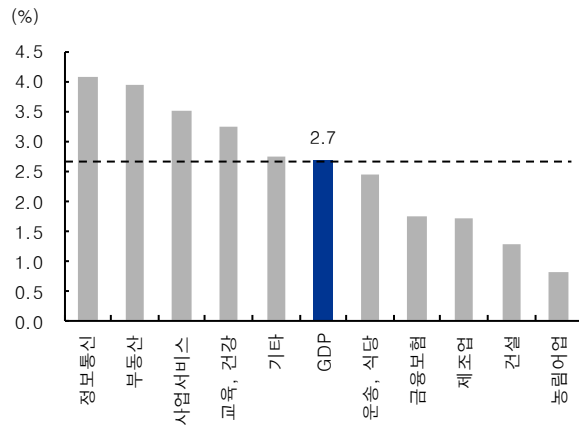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독일도 건강과 교육 업종의
성장세가 GDP 성장률을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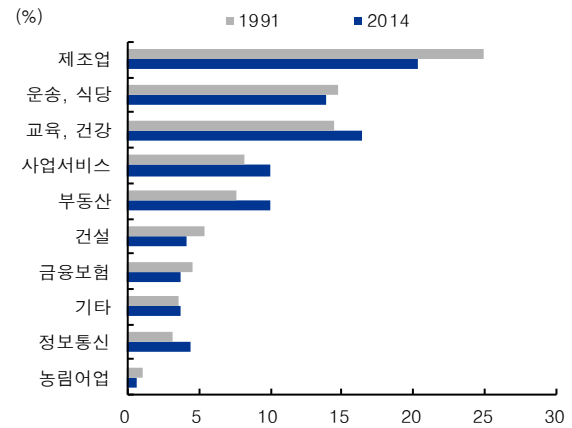
독일은 1972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독일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는데 1992년 이후 2014년까지 20년 이상 독일 경제는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장률을 상회한 업종은 정보통신과 부동산, 교육, 건강업종 등이다. 산업별 비중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비중이 20여년 전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건강과 교육 업종은 과거에 비해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27. 독일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1991~2014년)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28. 독일 산업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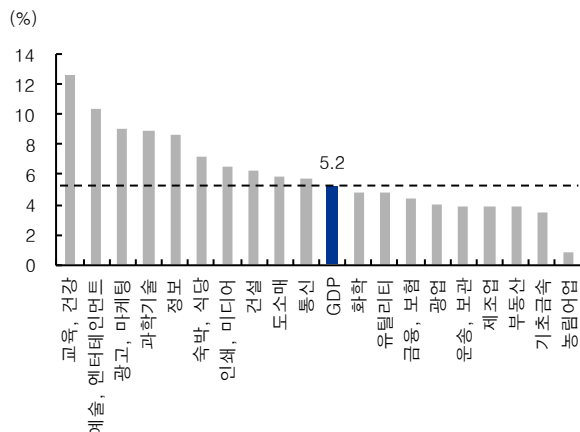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스웨덴도 건강과 교육
업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스웨덴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1971년으로 독일보다 1년이 빠르다. 일찍이 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경제성장은 1990~2014년 사이에 연평균 5.2% 성장하며 유럽 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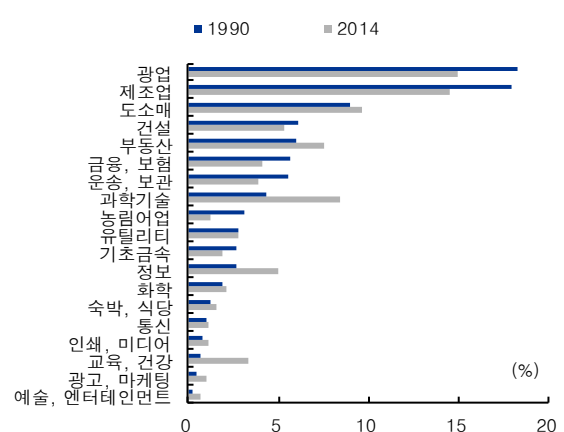
스웨덴의 산업별 성장률도 교육과 건강 업종의 성장세가 눈에 띄며 교육과 건강 등의 산업별 비중 변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29. 스웨덴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1994~2014년)



자료: Datastream, IBK투자증권

그림 30. 스웨덴 산업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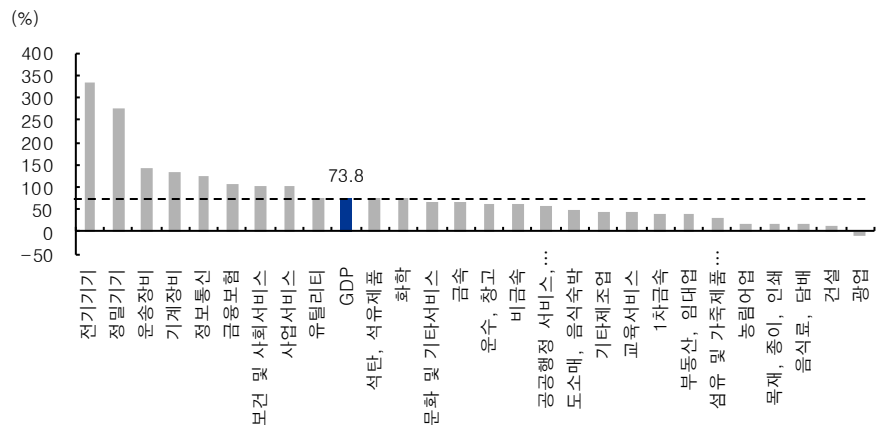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IBK투자증권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산업의 구조를 바꿔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보건 및 사회서비스 업종이 높은 성장세 나타내

우리나라 역시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보건 및 사회서비스 업종이 GDP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선진 고령국가와 같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대비 2014년까지 보건 및 사회서비스 업종은 102.7% 성장하며 같은 기간 우리 경제가 73.8% 성장한 것에 비해 30%p 가까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31. 한국의 산업별 성장률(2000년 대비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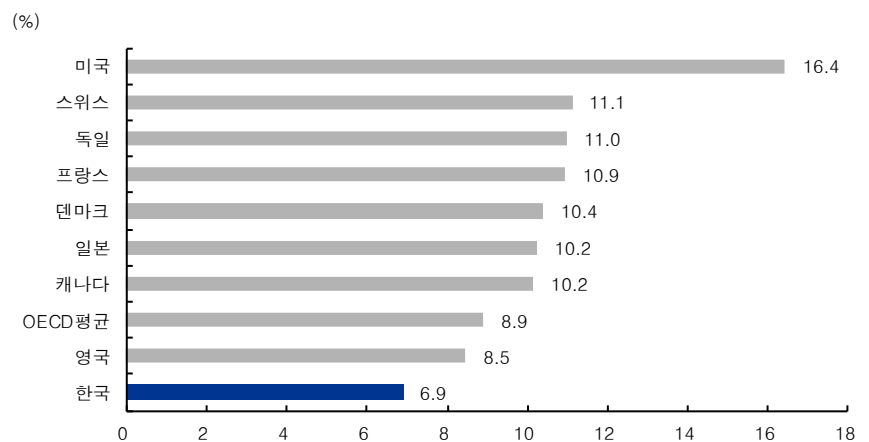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우리나라의 향후 건강 관련 산업의 전망도 밝아

우리나라의 향후 건강 관련 산업의 전망 또한 밝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강 관련 지출 비율은 선진 고령화 국가들과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향후 건강 관련 산업의 성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GDP대비 국가별 건강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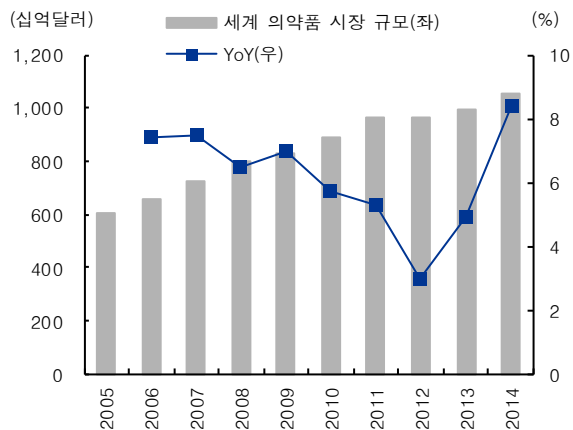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IBK투자증권

제약 업종의 상승세는 이미 시작

고령화는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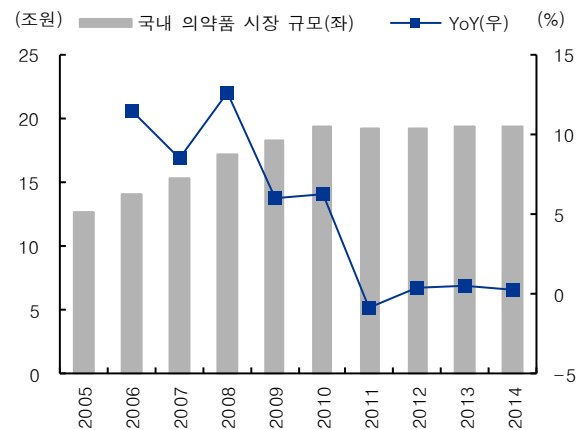
고령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는 그대로 의약품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 272억달러로 10년래 최고 성장률(+8.4%)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글로벌 바이오업종 매출액 역시 1,231억달러(YoY +24%)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도 2012년 약가 인하 충격에서 벗어나며 2014년 19.37조원의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그림 33.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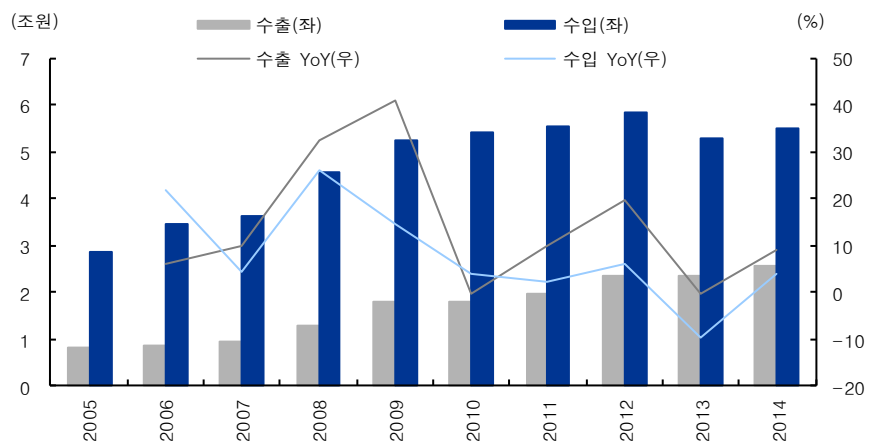
자료: IMS Health Market Prognosis, May 2015, IBK투자증권

그림 34.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자료: 식약처, IBK투자증권

그림 35. 연도별 의약품 산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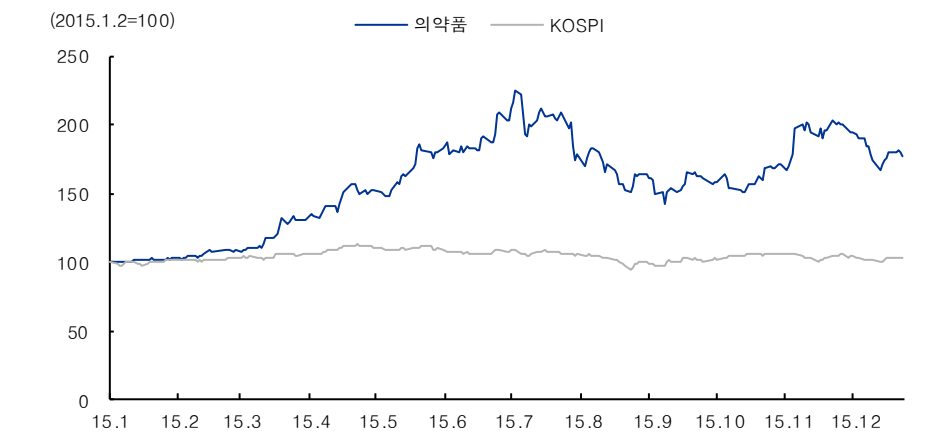


자료: 식약처, IBK투자증권

의약품 업종 성장은
주가로도 이어져

이런 산업의 성장성은 주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2015년 12월 24일 기준 KOSPI 의약품업종은 연초대비 76.5% 상승했고 KOSPI 대비 72.6%p 초과 상승하였다. 한미약품이 2015년 3월 일라이릴리(Eli Lilly) 대상 6.9억달러 규모의 BTK(Bruton's Tyrosine Kinase) 저해 면역치료제 HM71224와 2015년 7월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대상 7.3억달러 규모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저해 항암제 HM61713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R&D 및 B2B 성과기반 제약업종 리레이팅이 이루어졌다. 이후 제약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2015년 8~ 9월 조정을 받았지만 3분기 전반적인 호실적을 달성하고 한미약품이 11월 사노피(Sanofi) 대상 39억유로 규모 퀴텀프로젝트와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대상 9.2억달러 규모 HM12525A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림 36. KOSPI 의약품 업종 및 KOSPI 추이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2016년 이후 판은 더 커진다

고령화는 국내 대기업의
사업구조도 변화시켜

고령화에 따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2016년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국내 대기업의 사업구조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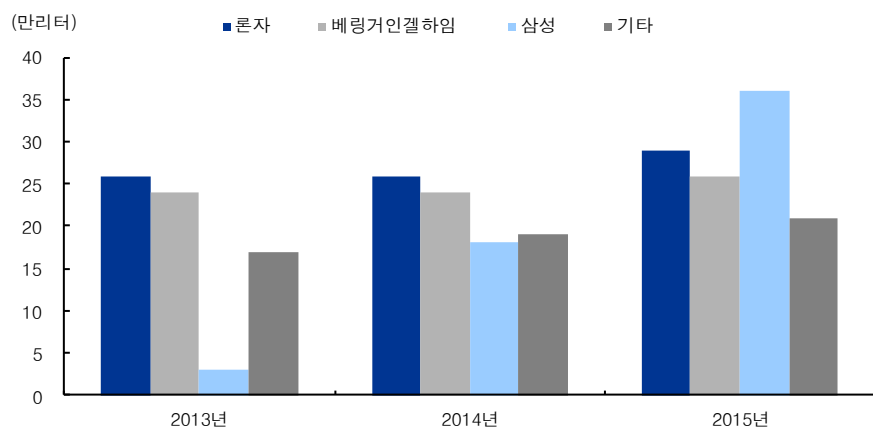
지난 2015년 3월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IT, 의학, 바이오의 융합을 통한 혁신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 발언의 핵심은 바이오였다. 바이오 산업은 이진희 회장이 2010년 선정한 5대 신수중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업화를 진행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삼성엔 사장단 인사를 통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
드러내

삼성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은 2015년 연말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복제약을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고한승 대표이사 사장이다. 1963년생으로 삼성 사장단 중 가장 젊은 고 사장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을 맡으며 삼성의 바이오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 받았다. 이로써 삼성의 바이오 관계사 두 곳이 모두 사장급으로 승격되면서 삼성 그룹의 바이오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바이오 회사로 의약품 생산 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18만리터 규모의 제3공장을 8,500억원을 들여 건설에 들어갔다. 제3공장이 완성되면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의 연간 3만리터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제2공장의 연간 15만리터를 더해 연간 36만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론자(26만리터), 베링거인겔하임(24만리터) 등을 제치고 단숨에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게 됨을 의미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5년 매출 2조원 돌파와 영업이익 1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림 37. 바이오 CMO 생산 용량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언론자료, IBK투자증권

참고: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
넘어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나날이 성장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삼성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825억달러, 약 97조원 가량인 반면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790억달러, 약 210조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진 이유는 앞서 언급한 고령화 때문이다. 고령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2016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제약바이오 관련주

관련 기업	기업요약	시가총액 (억원)
삼성물산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손자회사로 보유	275,999.01
셀트리온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 개발/생산 업체	88,483.72
한미약품	슈퍼바이오시밀러인 지속성 단백질의약품(당뇨병치료제, 인성장호르몬, 백혈구감소증치료제 등)을 개발 중	68,137.85
유한양행	의약품 사업(고지혈증치료제인 아토르바, 항생제인 메로펜, 비타민제인 뼈곰C(F) 및 비타민씨 등) 등을 영위	29,833.06
녹십자	항암제, 항암보조제, 항응혈제, 위염치료제 등 다수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을 진행중.	20,334.58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그룹 계열의 의약사업(원료의약품, 의약품중간체 등), 바이오신약사업(세포유전자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등) 등을 영위하는 업체	12,378.15
동아에스티	바이오시밀러인 항암보조치료제 "류코스팀(G-CSF, 호구감소증치료제)" 시판중. SKK(일본)와 바이오시밀러 기술수출 계약 체결(14년1월)	11,169.77
부광약품	주요 제품으로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치료제 치옥타시드, 간질환 치료제 레가론, 빈혈치료제 웨로바, 잇몸치료약 파로돈락스 등	9,698.47
LG생명과학	식약청으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임상허가를 받고 임상 시험 진행 중	9,448.88
일양약품	자양강장제 원비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 항히스타민제 보나링에이징, 소화제 아진탈포르테 등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	8,761.15
대웅제약	주요 제품으로는 우루사(피로회복, 간장해독), 율메텍(고혈압치료제), 알비스(위염, 위궤양), 글리아티린(뇌혈관질환치료제) 등을 보유	8,203.30
종근당	면역억제제인 사이폴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로우 등 다양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	8,072.96
동아쏘시오홀딩스	의약품과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동아제약(비상장) 지분 100%보유.	7,630.20
한올바이오파마	아미노산 치환 기술 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량형 바이오시밀러 한페론(C형간염치료제)을 개발 중	6,235.71
JW중외제약	수액제(링겔)를 비롯 프리페넴(항생제), 리바로(고지혈증치료제), 시그마트(협심증치료제) 등 다양한 약효군의 전문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	6,158.57
일동제약	주요 제품으로 활성비타민 아로나민골드, 위궤양치료제 큐란, 항생제 후루마린 & 후로독스, 뇌순환대사개선제 사미온 등이 있음	6,066.47
대화제약	전문약품 비중이 높으며, 정제, 경질캡슐제, 연질캡슐제, 연고제, 주사제, 플라스타(파스) 등 170여 품목을 생산, 판매	5,749.98
광동제약	청심원, 쌍화당 등 한방제품 및 건강음료 전문 제약기업	5,582.82
제일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신경병성통증치료제, 진통소염제 등의 의약품 생산 및 판매업체	5,078.70

자료: Infostock, Wisefn, IBK투자증권

"홍익인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다시 한 번 각 업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업종은 적용 분야가 사실상 세상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업종으로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홈에서부터 그 성장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과 같은 킬러 앱이 아닌 다른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로 사물인터넷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여러 중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관련 중소형주에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미국과 중국의 참여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친환경 산업의 성장 기회로 이어지고 그 친환경 산업의 근간은 2차전지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며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장치 또한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2차전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인한 클린 디젤의 경쟁력 약화와 중국의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 기대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더욱 주목해야 할 분야이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미 2015년 제약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향후 5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일 것이란 점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삼성그룹이 2015년 말 사장단 인사를 통해서도 드러냈듯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 의약품 시장만으로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그 규모가 2배 이상 크다는 점은 향후 성장성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2016년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고, 더욱 건강하게 하며 더욱 연장하게 할 "홍익인간" 업종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업종은 단순히 2016년 한 해 테마로만 지나갈 업종이 아니라는 점을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글로벌 경제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지속한 이후 성장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의 이동은 단순히 한 두 해에 걸쳐 끝날 사안이 아니며 향후 그 관심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된 산업이며 향후 국내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홍익인간" 업종에 대한 관심은 2016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업종이라고 판단된다.